

## 명대백화단편소설의 서양으로의 전파\*

- 금옥노 고사를 중심으로 -

김 소 정\*\*

### <目次>

I. 서론	VI. <비정한 남편>, 1883년
II. 원작 금옥노 고사의 서사 구조	VII. <아내와 배은망덕한 남편>, 1892년
III. <옥노, 두목의 딸>, 1868년	VIII. <두 번 결혼한 커플>, 1893년
IV. <보상, 중국 관료의 복수>, 1877년	IX. 결론
V. <비정한 남편>, 1879년	

### I. 서론

중국소설은 17세기 중국에 온 예수회선교사들에 의해 처음으로 서양에 소개되기 시작하여 이후로 그 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명대백화단편소설은 중국소설의 서양 전파사 초기 단계 때부터 번역되기 시작했으며 동일한 고사에 대한 중복번역도 많이 나올 정도로 번역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명나라 말기에 간행되어 청나라 때 큰 인기를 끌었던 《금고기관(今古奇觀)》은 그 당시 중국에 와서 체류하던 서양 선교사와 외교관에게도 알려졌고 그로인해 명대백화단편소설의 해외로의 전파에서 중요한 역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21S1A5B5A17057110).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할을 하게 되었다. 《금고기관》은 명나라 말기 강남지역 문인 포옹노인(抱擁老人)이 삼언(三言)과 이박(二拍)에서 40편의 고사를 골라 편찬한 선집(選集)으로 이후 청나라와 민국초기 동안 약 10여종 이상의 판본이 나올 정도로 독자의 사랑을 받았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금고기관》에 수록된 40편의 고사 가운데 제32권(卷) 〈금옥노가 박정한 남편을 방망이로 때리다(金玉奴棒打薄情郎)〉는 1868년 최초의 영어 번역이 나온 이래 지금까지 서구유럽어 즉 영어, 라틴어, 독일어, 불어 등으로 번역된 번역본이 11종 이상이나 나왔다. 이는 《금고기관》에 수록된 40편 고사 중에서 금옥노 고사가 단연 가장 많은 번역본이 나왔음을 입증하는 수치이다. 금옥노 고사는 원래 풍몽룡(馮夢龍, 1574~1646)이 편찬한 《고금소설(古今小說)》에 수록되었다가 이후 《금고기관》에 재수록되었는데, 조강지처를 버린 남편이 우여곡절 끝에 재결합하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금고기관》을 대표하는 두십낭(杜十娘) 고사, 매유랑(賣油郎) 고사, 장흥가(蔣興哥) 고사 등을 제치고 금옥노 고사는 서양번역가들에게 특별한 주목을 받아 19세기에만 무려 6종의 번역본이 나왔다. 본고에서는 지면상의 제약으로 인해, 1868년 최초의 영역본이 나온 이후로 1893년까지 25년 동안 나온 6종의 서구유럽어 번역본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개별 번역본을 시대순으로 고찰하면서 서양으로 전파되어간 초기 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번역가가 처했던 시대문화적 맥락, 번역동기와 특징, 출간방식 등에 주안점을 두어 기술하고, 아울러 6종 번역본의 특징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여 부록으로 첨부한다.

## II. 원작 금옥노 고사의 서사 구조

번역본을 고찰하기에 앞서 원작 금옥노 고사의 서사구조와 전개방식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금고기관》에 수록된 화본소설은 송원시기

설화기예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강창문학의 독특한 형식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화본소설은 편수(篇首)—입화(入話)—정화(正話)—편미(篇尾) 순으로 구성되는데, 대개의 경우 편수는 주제를 명확하게 밝히거나 전편의 대의를 개괄한 개장시(開場詩)로 시작한다. 입화는 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들려주는 짙막한 이야기로, 설화인이 구연할 때 더 많은 관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시간을 벌고 일찍 온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정화의 주제와 연관성 있는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설화기예에서 기원하였다. 입화는 정화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주제를 부각시키고 교훈적 메시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화는 본 이야기 부분이며, 편미에서는 서술자가 돌연히 개입하여 사건을 매듭짓고 수장시(收場詩)를 통해 교훈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화본소설은 이러한 독특한 체제 외에, 운문으로 된 시사(詩詞)를 소설속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등장인물의 외모와 심리, 정경(情景)에 대한 묘사, 서술자의 평론 등을 전달함으로써 운문과 산문이 혼합된 문체상의 특징도 갖고 있다.

금옥노 고사는 바로 이러한 화본소설의 체제에 따라 서술되어 있다. 편수의 개장시는 ‘버림받은 아내(棄婦詞)’로, “가지는 꽃이 없어도 봄이 되면 다시 꽃을 피우지만, 꽃은 가지에서 떨어지면 가지에 다시 붙지 못한다.”는 구절을 통해 아내를 꽃에 남편을 가지에 비유했으며, 세상의 부녀자들은 남편을 섬김에 있어 도리를 다하고 동고동락하여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야하며 만일 빈천함을 혐오하고 부귀함을 탐내어 다른 마음을 먹으면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을 덧붙였다. 개장시 ‘버림받은 아내’는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 여성의 이야기를 서술한 입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며 부부간에 배신하지 말라는 정화의 교훈적 메시지와 자연스럽게 연관된다.

입화는 한나라 무제시기 회계태수 주매신(朱買臣)의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떠난 이야기이다. 그녀는 주매신이 빈한했던 시절에 그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갔는데, 이후 주매신이 회계태수가 되어 금의환향하는 도중에 마주치게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하고 부끄러움

에 자살한다. 정화의 소재와 연관성 있는 사건을 과거의 역사에서 가져와 입화로 활용했는데 이는 화본소설이 중국의 오래된 사전(史傳)문학 전통의 기반 위에 생겨났기 때문이다.

정화는 조강지처를 버린 남편의 이야기로, 그 줄거리 전개는 다음과 같다. ① 남송시기 수도 임안(臨安)의 거지두목은 물질적 풍요를 누렸으나 사회적으로는 천대받는 미천한 신분임을 설명한다. ② 왕년에 거지두목이었던 금노대(金老大)와 외동딸 옥노(玉奴)에 대해 소개한다. ③ 매과를 통해 옥노는 가난한 수재(秀才) 막계(莫稽)와 결혼하게 된다. ④ 옥노의 결혼식 날, 현재의 거지두목이자 금노대의 친족 금나자(金懶子)가 초대받지 못하자 거지무리를 이끌고 와서 한바탕 소동을 부린다. ⑤ 결혼 후 옥노는 남편 막계가 과거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성껏 내조하고, 그 덕분에 막계는 과거에 급제한다. 막계는 금의환향하는 도중에 마을 아이들로부터 “거지두목의 사위가 과거에 붙었대요”라고 놀리는 말을 듣고 미천한 신분의 장인을 둔 것을 후회한다. ⑥ 막계는 무위군(無爲軍)의 사호(司戶)에 제수되어 고향 임안을 떠나 부임지로 향하는 배에 오르고, 선상에서 막계는 옥노를 밀어 강에 빠뜨린다. ⑦ 때마침 회서(淮西)의 전운사(轉運使)직을 제수받은 허덕후(許德厚)가 새 부임지로 가던 중 강 기슭에서 울고 있는 옥노를 발견하고 급히 데려와 자초지종을 듣고 양녀로 삼는다. ⑧ 회서에 도착한 허덕후는 막계의 상관이 되고 그가 바로 옥노의 남편이었음을 알게된다. 그는 요속(僚屬)에게 사윗감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하고, 요속은 막계를 추천한다. 중매쟁이가 된 요속은 막계에게 가서 전운사댁의 혼담을 제안하고 막계는 흔쾌히 동의한다. ⑨ 허덕후의 아내는 옥노에게 신랑감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재혼을 권유하는데, 옥노는 비록 남편으로부터 버림당했을지언정 자신은 일부종사(一夫從事)하겠다고 거절한다. 그러자 허덕후의 아내는 허덕후가 막계의 박정한 행동에 분개하여 그녀를 재결합시켜주려 한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그녀의 동의를 얻어낸다. ⑩ 혼례식 날, 신방으로 들어간 막계는 7~8명의 하녀들이 휘두르는 대나무 방망이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두들겨 맞고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나

서 신부의 얼굴을 확인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막계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허덕후에게 빌고, 옥노는 막계의 배은망덕하고 불의한 행동을 호되게 질책한다. 허덕후 부부가 나서서 격앙된 옥노를 진정시키고, 막계와 화해하도록 중재한다. ⑪ 막계와 옥노는 재결합하고, 그들은 허덕후 부부를 친부모처럼 대했다. 그리고 막계는 금노대를 부임지로 모시고 와서 죽을 때까지 봉양했다. 막계는 50세가 되자 급사하는데, 이로써 과거에 아내를 강물에 빠뜨렸던 불의한 행동에 대한 죄값을 치른다.

편미의 주장시에서는 “송홍(宋弘)은 의리를 지켜 절개가 높다고 칭송받았고 황윤(黃允)은 아내를 버려서 박정하다고 비난받았다. 막생(莫生)이 결혼한 뒤 다시 결합한 사실로 보아하니, 인연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헛되이 애쓰지 마세요”라고 매듭짓고 있다. 의로운 행동은 칭송으로 보답받고 배은망덕한 행동은 세상 사람들로 부터 비난당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막계는 사사로운 욕심을 부려 하늘이 정해준 아내를 배신했으니 어리석었다는 서술자의 평을 편미에서 전하고 있다.

### Ⅲ. 〈옥노, 두목의 딸〉, 1868년

첫 번째 번역본은 영국 성공회교도이자 아모이 영사를 지낸 에드윈 에반스(Edwin Evans, 1820~1852)가 번역한 〈옥노, 두목의 딸, 1600년대의 로망스(Yuk Noo, The Round Head's Daughter, A Romance of 1,600 Years Ago)〉이다. 이 번역은 에반스가 사망하고 난 뒤 16년이 지나서, 1868년에 홍콩에서 발간한 《차이나 매거진(The China Magazine)》 미드썸머(midsummer)권에 발표되었다.<sup>1)</sup> 《차이나 매거진》은 중국문학과 시

1) 1868년 《차이나 매거진》 미드썸머권에 보면, 챕터1은 5-7쪽, 챕터2에서 챕터3 전반부까지는 17-20쪽, 챕터3 후반부터 챕터4는 37-39쪽에 분산되어 게재되어 있다.

사보도를 함께 실었으며, 중국인의 일상을 담은 풍경, 복식과 건물양식을 찍은 사진을 많이 게재한 것으로 유명했다. 에반스는 비숍스 컬리지(Bishop's College)에서 공부했으며, 1839년 아버지 존 에반스(John Evans, 1801~1840)가 총장으로 있던 말라카의 앵글로-차이니즈 컬리지(Anglo-Chinese College)에서 출판업무를 도왔던 경험이 있었다.

에반스는 개장시, 입화, 수장시, 정화에 삽입된 시사(詩詞)를 일괄적으로 생략하고, 정화를 임의로 4개의 챕터로 나누어 기승전결의 구조를 취했다. 중국 화본소설의 독특한 체제와 운문과 산문이 혼재된 문체상의 특징을 지우고, 서양 독자들의 독서습관에 부합하는 번역책략을 사용했다. 그 결과 금옥노 고사는 권선징악적 결말을 지닌 가볍게 읽는 짧고 재미난 로망스로 변모했다. 1챕터에는 중국원본의 정화②,③,④의 내용 즉 왕년의 거지두목 김라오파(Kim Laou Ta, 원작의 금노대)와 위누(Yuk Noo, 원작의 옥노)에 대한 소개부터 김래추(Kim Lae Choo, 원작의 금나자)의 소동까지, 2챕터에는 정화⑤,⑥,⑦의 내용 즉 모커(Mô Ke, 원작의 막계)가 과거 급제한 뒤 벼슬을 제수받아 부임지로 가는 배에서 위누를 강물에 빠뜨리고, 다행히 위누는 허티호우(Hew Tih How, 원작의 허덕후)에게 구조되는 내용까지다. 3챕터에는 정화⑧,⑨의 내용 즉 상관 허티호우가 모커에게 혼담을 제안하여 승낙을 받아내고, 결혼식 날 모커가 허티호우의 집으로 가는 내용까지다. 4챕터에는 정화⑩,⑪의 내용 즉 결혼식 날 모커가 하녀들에게 대나무 방망이로 두들겨 맞고 신부가 바로 위누였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급히 용서를 구하고, 허덕후의 중재로 두 사람은 다시 부부가 된다. 모커가 50세쯤 되자 천상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모커의 수명이 단축된 이유를 설명해주고 이 사실을 듣고 난 이후 모커는 즉시 사망한다. 정화에서 생략된 부분은 ①인데, 이는 중국사회에서 거지두목의 역할과 미천한 지위에 대해 서술자가 직접화법으로 설명한 단락으로, 에반스가 봤을 때 사건 전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에반스는 정화②의 첫 문장—“이 고사(입화-필자 주)는 아내가 남편을 버린 것이고, 이제 아내를 버린 남편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겠습니다

다. 빈천한 자를 기만하고 부유한 자를 중시하고 의를 저버리고 은혜를 잊어서 나중에 공연히 박행(薄倖)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의론을 샀습니다.”<sup>2)</sup>도 생략했다. 정화에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직전에 정화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한 이 문장은, 중국 강창문학 전통에 익숙하지 않은 서양인 번역가가 봤을 때 오히려 재미를 떨어뜨리는 쓸데없는 군더더기로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반스의 번역은 직역이 아닌 의미중심의 번역이었고, 중국어 원제 대신 새로운 제목이 달렸다. 에반스는 ‘옥노, 두목의 딸’로 제목을 고쳐 여주인공 옥노의 독특한 신분 즉 거지두목의 딸임을 부각시켰다. 한편 두목을 의미하는 중국어 “團頭”를 “Round Head”로 축자역하여 서양인들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번역어휘 방면에서 고유명사는 음역했으며, 주석은 전혀 달지 않았다. 에반스가 새롭게 추가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옥노가 남편에게 배신당하는 사건에 대한 복선이다. 과거에 급제한 모커는 금의환향하는 도중에 거지두목의 사위가 출세했다고 놀리는 소리를 듣고 부끄러워하며 미천한 집안에 장가온 것을 후회하기 시작한다. 이 때 중국 원문에서는 서술자가 개입하여 막계를 질책하지만, 에반스의 번역본에서는 서술자의 막계에 대한 비평은 삭제되고 대신에 우울해하는 남편의 모습을 본 위누의 독백이 첨가되어 있다.

[중국 원문] 玉奴幾遍問而不答，正不知是什麼緣故。好笑那莫稽只想著今日富貴，卻忘了貧賤的時節，把老婆資助成名一段功勞，化爲春水，這是他心術不端處。<sup>3)</sup> (옥노는 여러번 물었으나 막계가 대답하지 않아 무슨 연고인지 알 수 없었다. 가소롭게도 막계는 지금의 부귀함만 생각하고 빈천했던 시절을 잊어버렸네. 아내가 자금지원을 해서 이름을 떨치게 한 공로를 봄물로 만들어버리니, 이는 그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2) “這個故事，是妻棄夫的；如今再說一個夫棄妻的，一般是欺貧重富，背義忘恩，後來徒落得個薄倖之名，被人講論。”明 抱擁老人 撰輯，《今古奇觀》，臺北：世界書局，1976，388쪽.

3) 같은 책，390쪽.

[에반스 번역본] Yuk Noo addressed him several times without his replying, so she thought to herself: “Now that my husband has obtained wealth and honour, he has forgotten the time when he was poor and lowly, and is unmindful of all the kind assistance he received from my father; this makes me fear that his heart is not right.”<sup>4)</sup> (위누는 그에게 여러 번 말했으나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 생각하길, “지금 내 남편은 부와 명예를 거머쥐자 가난하고 미천했던 때를 잊어버렸구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게서 받은 모든 자애로운 지원도 마음에 두지 않는구나. 그의 마음이 정의롭지 않을까봐 걱정이야.”)

이상의 에반스 번역본에서 밀줄 친 위누의 독백은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불행을 미리 던지시 암시하는 복선으로 기능한다. 에반스는 서구독자에게 생소한 서술자의 평론을 지우고, 서구 단편소설에서 상용하는 복선이라는 서사기법을 가져와 운용함으로써 화본소설이 가진 이국성을 최소화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 IV. 〈보상, 중국 관료의 복수〉, 1877년

두 번째 번역본은 미국인 성공회선교사 리디아 메리 페이(Lydia Mary Fay, 1804~1878)가 번역한 〈보상, 중국 관료의 복수(Recompense, or the Mandarin's Vengeance)〉이며 1877년 월간지 《극동(The Far East)》 3권에 실렸다. 《극동》은 스코틀랜드계 출판업자 존 레디 블랙(John Reddie Black, 1826~1880)이 요코하마에서 1870년에 창간하여 1878년에 정간한 잡지로, 초기에는 격주로 발간되다가 이후에 월간지로 바뀌었으며 사진을 많이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런데 1876년에 블랙이 상해로 건너감에 따라 상해에서 간행되었는데, 바로 상해에서 간행될 때 페이의 번역본이

4) trans, by Edwin Evans, “Yuk Noo, The Round Head's Daughter, A Romance of 1,600 Years Ago”, *The China Magazine* Vol. Midsummer, (1868), 17.

실리게 되었다. 페이는 1851년에 상해로 왔으며 남자기숙학교(Episcopal Boy's Boarding School)에서 교육자로서 헌신적인 생애를 살다가 1878년 신동 연대(煙臺)에서 생을 마감했다. 페이는 상해 방언을 매우 잘 구사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미국인선교사 사무엘 웰스 윌리엄스(Samuel Wells Williams, 1812~1884)를 도와 《중국어 음절사전(A Syllabic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 개정판 작업에 참여하여 〈상해방언발음색인〉을 작성했다. 그녀가 중국에 온 지 26년째 되던 1877년에 발표한 〈보상, 중국 관리의 복수〉는 중국문화에 대한 풍부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하였다. 페이는 중국어 원제 대신 ‘보상, 중국 관료의 복수’로 제목을 고쳤는데, 이는 재결합하는 결혼식 날 막계를 몽둥이로 때려 통쾌하게 복수하는 허덕후의 사건처리, 그리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옥노를 다시 막계와 재결합시켜준 보상적 결말에 근거한 변경이었다.

페이 번역본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인물의 심리묘사, 옥노의 부덕(婦德)에 대한 강조, 금나자의 소동에 대한 새로운 해석, 중국결혼문화에 대한 상세한 설명, 결말에 강조된 기독교 신앙 등이 그것이다. 추가된 부분 외에, 변경된 점은 고사의 시대적 배경을 송나라에서 명나라로 바꾼 것이다.

페이 번역본의 특징을 상세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등장인물의 심리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원작에 비해 행동을 초래한 내적 동기를 훨씬 분명하게 전달했다. 예를 들면, 모커(Mok-ke, 원작의 막계)가 매과로부터 거지두목의 딸과 결혼하겠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왜 나는 미모의 부잣집 여인과 결혼할 수 없단 말인가?”<sup>5)</sup>라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 섞인 독백을 추가적으로 삽입함으로써 애당초 거지두목의 사위로 들어가는 것을 기꺼워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리고 옥노를 물에 빠트리기 직전에도 내적 갈등을 추가했다. 자애로우면서 경제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었던 장인, 그리고 지혜롭고 아름다웠던 아내였기에 그들의 은혜를

5) trans. by L. M. Fay, “Recompense, or the Mandarin's Vengeance”, *The Far East* Vol.3, (1877): 123.

저버리는 행동을 결심할 때 모커는 번민하길, “나는 그녀를 떠날 수 없어, 나는 그녀를 멀리 떠나보낼 수 없어, 그녀는 상냥하고 현명하며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그렇지만 아! 아! 나는 그녀와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어.”<sup>6)</sup> 뿐만아니라 모커가 아내를 버린 배신행위를 정당화하는 이유를 생각해내는 대목도 첨가했다. 갈등의 절정인 옥노를 강물에 빠뜨리는 장면에서 추가된 모커의 독백을 중국 원문과의 대조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원문] 是其夜月明如晝, 莫稽睡不能寐, 穿衣而起, 坐於船頭玩月; 四顧無人, 又想起團圓之事, 悶悶不悅. 忽然動一個惡念, 想道“除非此婦身死, 另娶一人, 方免得終身之羞.” 心生一計, 走進船艙, 哄玉奴起來看月華. 玉奴已睡了, 莫稽再三逼他起身.<sup>7)</sup> (그날 밤 저녁은 달이 대낮처럼 환하게 빛났다. 막계는 잠을 이루지 못해 옷을 입고 일어나서 뱃머리로 가 앉아서 달을 감상했다. 주위에 아무도 없자 거지두목의 일이 다시 생각나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해졌다. 갑자기 나쁜 마음이 일어나 생각하길, “이 부인이 죽고 다른 사람을 아내로 얻어야만 평생의 수치를 비로소 면할 수 있어.” 한 가지 계책이 마음속에 떠올라 뱃머리로 가서 옥노에게 일어나 빛나는 달을 구경하러 가자고 부추겼다. 옥노는 이미 잠들었는데, 막계가 일어나라고 재차 강요했다.)

[페이 번역본] It was long past midnight, Mok-ke walked the deck alone. He had tried to sleep but found it impossible. His wife, weary with the unusual scenes and fatigue of the day, had long since retired to her couch. No sound was heard, every one on the little fleet of boats seemed fallen into a deep sleep. Even the watchmen were slumbering at their posts. He seemed alone in a fairy-land of light and beauty and absolute stillness! “Do evil spirits tempt men to crime in such moments of splendour and repose?” He said to himself. “No, this must be a legitimate thought, a precaution quite necessary in my present position as

6) 같은 글, 125쪽.

7) 明 抱擁老人 撰輯, 앞의 책, 390쪽.

government officer.” With that he walked deliberately into the cabin where his wife was sleeping; and gazing for a moment on her beautiful and innocent face, sighed, and wavered in the horrible resolution he had just made; but again clenched his hands and hissed, “*it must be.*” The noise, or his intense gaze, disturbed her slumbers; she opened her eyes and was surprised, and, little knowing his motives, pleased to see him standing near her. “Come,” said he, trying to throw a little tenderness into his voice, “arise, let us go on deck; the night is magnificent; one never sees the moon in its full glory except as it shines on the broad and silvery waters of Hangchow Bay. Come without delay.” he again said, “the night wanes: soon its glorious beauty will have passed into morning, and ere another night we shall have reached our destination.”<sup>8)</sup>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간, 모커는 혼자서 갑판을 걸었다. 그는 잠을 자려고 해보았으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아내는 그날의 생소한 상황과 피로에 지쳐 침상에 든지 오래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작은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다. 파수꾼조차도 자신들의 구역에서 즐기고 있었다. 그는 빛과 아름다움과 절대적인 고요함의 동화나라에 홀로 있는 것 같았다! “악령은 그토록 화려하고 평온할 때 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한단 말인가?” 그는 혼잣말을 했다. “아니야, 이것은 정당한 생각인에 틀림없으며, 현재 조정의 관료가 된 내 위치에서는 매우 필요한 사전대책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아내가 자고 있는 선실로 의도적으로 걸어갔고, 방금 마음먹은 끈적한 결심에 망설이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다시 주먹을 꽉 쥐고 “해야만 해”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음과 그의 강렬한 시선이 그녀의 잠을 깨웠다. 그녀는 눈을 뜨고는 깜짝 놀랐고 그의 의도를 거의 알아채지 못한 채 그가 그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는 “와요”라고 말했고, 좀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면서 “일어나요, 갑판으로 갑시다. 밤이 정말 아름다워요. 항주만(杭州灣)의 넓고 은빛 물결에 빛나는 달빛 말고는 최고의 장관을 이루는 달을 볼 수 없어요. 지체하지 말고 와요.” 그는 또 말했다. “밤은 저물고 곧 그 찬란한 아름다움은 아침으로 넘어가고, 다음 밤이 되기 전에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할 거요.”)

8) trans. by L. M. Fay, 앞의 글, 126쪽.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페이 번역본에서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번역가가 새롭게 창조한 모커의 독백이다. “악령은 그토록 화려하고 평온할 때 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한다 말인가?”는 마치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나온 듯한 한탄스런 독백이다. 조정의 관료가 된 현재의 지위에서는 미천한 출신의 아내를 없애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전대책이라는 생각은 정당하다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게다가 페이 번역문에서는 “*해야만 해(it must be)*”라는 모커의 혼잣말을 이탤릭체로 특별히 강조함으로써 그의 악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한층 부각시키고 있다.

둘째, 모커의 비정함에 대비되는 옥노의 부덕과 도덕성을 더욱 강조했다. 후테한(Hue-tih'-han, 원작의 허덕후)이 옥노에게 재가를 권유하기 직전, 그녀가 양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섬세한 손으로 지수를 완성해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버림받은 운명을 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크게 감동 받았다.<sup>9)</sup> 페이는 옥노가 배은망덕한 남편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후테한이 무커와의 재결합을 제안했을 때 동의할 수 있었다고 추가적으로 기술했다.<sup>10)</sup>

셋째, 금옥노 고사는 거지계층과 문인계층 간의 대립과 적대감을 가장 잘 반영한 작품이라고 번역자 페이는 소개했다. 거지동냥은 중국에서 정식으로 인정되는 제도로 정의, 질서, 정확성 및 신속함을 바탕으로 한 규칙과 규정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내부에는 두목 또는 우두머리, 상사와 부하가 있다고 주석을 통해 설명했다. 거지계층에 대한 문인들의 적대감이 뚜렷하게 드러난 장면은 바로 거지두목이 일으킨 결혼피로연에서의 소동이였다. 수재 신분의 모커를 사위로 맞이하고 나서, 장인 칭(Ching, 원작의 금노대)은 사위의 친구인 문인계층을 초청하여 7~8일 동안이나 성대한 결혼피로연을 연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칭의 동생이자 현재의 거지두목(원작의 금나자)이 50~60명의 거지무리를 데리고 와서 난동을 부렸는데,

9) 같은 글, 128쪽.

10) 같은 글, 129쪽.

여기서 번역가 페이는 이 난동은 두 계층 간의 적대감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사실, 중국원작에서 거지두목 금나자는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해 자존심이 상해서 핫김에 쳐들어간 것이었다. 질녀가 설령 상서, 재상과 결혼한다 해도 숙부인 자신은 마땅히 참석할 자격이 있는데 일개 문인서생과 결혼하는데 초대받지 못했으니 모멸감으로 인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던 것이다. 이처럼 원작에서 금나자의 난동은 순전히 개인적 분노 차원이었다. 그런데 페이의 번역본에서는 칭의 동생 거지두목은 일찍부터 부유한 형의 도움으로 문인사회에 들어가거나 관직을 얻길 바랬으나 형이 전혀 도와주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던 차에, 마침 조카가 문인과 결혼해서 문인계층 하객을 초청하여 7일 동안 피로연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적개심이 일었다. 그래서 그는 피로연을 망쳐주러 가기로 작정했는데, 그 결심을 할 때 그는 자신의 행동이 분명 문인하객들의 고상한 문화적 취향에 불쾌감을 줄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 즉 그는 문인들에게 불쾌감을 주기 위해 일부러 소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물론 그가 피로연에 가서 형을 비난했던 명분은 자신을 결혼식과 피로연에 초대하지 않은 점에서 가족을 무시한 것과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은 것이었으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문인들을 욕보이기 위해서였다. “문인들은 이것을 (거지두목의 결혼피로연 난동—필자 주) 용납할 수 없는 모욕으로 간주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sup>11)</sup>는 서술을 추가하여 번역가는 이점을 강조했다. 그런데 그의 문인계층에 대한 일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조카사위 모커를 향해 고두레를 하라고 소리치기까지 했다. 고두레는 그 당시 서양인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사회에서 상대방에게 행하는 최고의 예법이었으니, 거지두목의 이러한 요구는 그동안 문인계층에게 무시당했던데 대한 보복이자 그들에 대한 통쾌한 조롱이었다. 페이는 이러한 서술을 첨가함으로써 이 고사를 거지하층민과 문인상류층의 대립과 반목을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로 변모시켰다.

11) 같은 글, 124쪽.

넷째, 중국혼인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거지두목의 딸이라는 신분상의 결합 때문에 옥노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적당한 사윗감을 찾지 못하는 대목에서 서술자는 옥노의 사주팔자를 물어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기술하면서 중국사회에서 사주팔자를 물어보는 것은 바로 혼담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sup>12)</sup>

마지막으로, 결말에서 병석에 누워 있던 모커가 신의 환영을 보게 되고, 자신이 일찍 죽게 된 이유를 듣고 나서 부끄러움에 휩싸여 자신의 죄를 자책하면서 “신은 공정하다!(Heaven is just!)”고 말했다. 그리고 신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보상을 항상 공정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치를 말하면서 자신의 일을 세상사람들에게 경계로 삼게 하라고 당부했다. 번역가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여 결말부분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다 알고 있는 신, 보상을 항상 공정하게 하는 신의 존재를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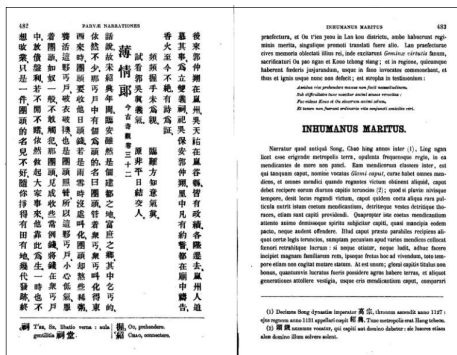
## V. 〈비정한 남편〉, 1879년

세 번째는 안젤로 조톨리(Angelo Zottoli, 1826~1902) 신부가 라틴어로 번역한 〈비정한 남편(Inhumanus Maritus)〉이다. 이 라틴어 번역은 조톨리 신부가 1879년에서 1882년까지 3년에 걸쳐 5권으로 편찬한 《중국문학교정(Cursus Litteraturæ Sinicæ)》의 제1권에 수록되었다. 이 책은 상해 서가회(徐家匯)에 위치했던 토산만(土山灣) 천주교고아원 인쇄소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에는 ‘소설’ 항목 아래 금옥노 고사 외에, 《금고기관》의 3개 고사가 함께 번역되어 있다.<sup>13)</sup> 예수회 선교사 조톨리는 1848년 9월 22세

12) 같은 글, 123쪽.

13) 《금고기관》 제1권 〈세 효렴이 재산을 양보하여 높은 명성을 세우다(三孝廉讓產立高名)〉가 ‘효제리(孝弟里)’라는 제목으로, 제11권 〈오보안이 가족을 버리고 친구를 구하다(吳保安棄家贖友)〉가 ‘쌍의사(雙義祠)’로, 제37권 〈최준신이 부용 병풍을 만나다(崔俊臣巧會芙蓉屏)〉가 “부용병(芙蓉屏)”으로 함께 번

의 나이로 중국에 와서 상해 서회공학(徐匯公學)에서 교육과 선교사업에 힘썼으며, 그가 배출한 중국학생 가운데 유명한 인물로 청대의 언어학자이자 관료였던 마건충(馬建忠, 1845~1900)이 있다. 이 책은 유럽에서 중국으로 온 선교사들에게 중국어 독해 교재로 제공하기 위해 편찬되었다. 조틀리는 금옥노 고사의 중국어 원제를 ‘박정랑(薄情郎)’으로 간략화했으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대(前代)의 번역본과 마찬가지로 개장시와 입화, 정화①, 편미의 일부를 생략했다. 그런데 정화 부분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원문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화의 시사를 빠짐없이 번역함으로써 앞서 나온 번역본을 뛰어넘는 충실성을 보였다. 다만 편미에서 허씨와 막씨가 대대로 형제처럼 지내며 왕래했다는 서술과 수장시를 생략했는데, 이 부분의 생략으로 인해 막계가 아내를 물에 빠뜨린 과거의 잘못 때문에 제 수명을 다누리지 못하고 일찍 사망하는 장면에서 이야기가 종결되어 그 응보적 결말이 훨씬 강렬하게 전달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특히 편집체제가 아주 독특한데, 이 책을 활용하는 독자들에게 중국어 학습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왼쪽면(찍수면)에 중국어 원문을 실고, 오른쪽면(홀수면) 상단에 라틴어 번역본을 실고 하단에 각주 형식으로 단어 해설을 덧붙였다. 조틀리의 라틴어 번역본은 12년 뒤 1891년에 드뷔시(S. J. De Bussy)에 의해 불어로 번역되어 “무정한 남편 (Le Mari Sans Cœur)”이라는 제목으로 프랑스 독자들과 만나게 되었다.



〈삽화 1〉 조틀리의 〈무정한 남편〉

역되어 있다.

## VI. <비정한 남편>, 1883년



### <삽화 2> 가벨렌츠의 <무정한 남편>

네 번째는 독일의 언어학자 게오르그 폰 가벨렌츠(Georg von der Gabelentz, 1840~1893)가 번역한 <비정한 남편(Der hart herzige Gatte)>이다. 이 번역은 가벨렌츠가 편찬한 《중국어법입문(Anfangsgrunder der chinesischen Grammatik)》에 수록되어 1883년 라이프치히에서 출간되어 독일 독자와 만났다. 이 책은 독일 최초로 출간된 중국어 문법서였다. 애초에 금옥노 고사를 문학작품으로써 감상하려고 번역한 것이 아니라, 중국어 어법 교재 안에 수록하여 현대중국어의 구조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에서 번역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화의 앞부분만 발췌 번역했다. '박정량(薄情郎)'이라는 제목 아래 정화②-③에 해당하는 내용만 번역했는데, 왕년의 거지두목 금노대가 외동딸 옥노를 수재 신분의 막계에게 시집보내려고 매파를 통해 혼담을 넣고 가난한 막계는 결혼예물을 마련할 돈이 없어 주저하는 장면까지이다. 편집체제가 매우 독특한데, 중국어 원문과 독일어 번역문을 한 페이지에 같이 배치하면서 상단에 중국어 원문을 배치하고 하단에 원문 내용에 상응하는 독일어 번역문을 배치했다. 그리고 상단의 중국어 원문은 세로쓰기를 하고 한자에 대한 발음기호를 오른쪽에 표기하고 그 옆에 뜻도 덧붙였다.

## VII. <아내와 배은망덕한 남편>, 1892년

다섯 번째는 프랑스 중국학자 데르베 드 생드니 후작 마리 장 레옹(Marie-

Jean-Léon, Marquis d'Hervey de Saint Denys, 1822~1892)이 번역한 <아내와 배은망덕한 남편(Femme et Mari Ingrats)>으로, 《6중 소설(Six Nouvelles)》에 수록되어 파리에서 1892년에 출간되었다. 이 책에는 금옥노고사와 함께 《금고기관》의 5편 고사가 번역되어 있다. 생드니 후작은 1840년 19세에 파리의 동양언어문화대학(L'Ecole des Langue Orientale Vivante)에 진학하여 중국어를 배웠으며, 1874년 개최된 파리세계박람회에서 중국전시관을 기획하여 중국문명의 특징적인 건축물을 훌륭하게 재현해냈으며, 1873년에는 스승이자 프랑스의 제1세대 중국학자 스타니슬라스 줄리앙(Stanislas Aignan Julien, 1797~1873)의 뒤를 이어 콜레주 드 프랑스 중국학과에서 교육과 연구의 길을 걸었다. 1878년에는 금석문 문예 아카데미(the Académie des Inscriptions et de Belles-Lettres) 회원으로 선출되었고, 1888년에는 프랑스학술원 회장이 되었다. 그는 중국고전문학의 번역에서 많은 성과를 냈는데, 1862년에 《당시(Poésies de l'époque des Thang, 唐詩)》, 1870년에는 《이소: 기원전 3세기의 시(Le Li-sao: poème du IIIe siècle avant notre ère, 離騷)》를 출간했다. 그리고 그는 1885년부터 《금고기관》을 번역하기 시작하여 1892년까지 모두 12편의 고사를 번역했다. 그중 3편은 1885년에 출간된 《3중 중국소설(Trois Nouvelles Chinoises)》에, 또 다른 3편은 1889년에 출간된 《3중 중국소설(Trois Nouvelles Chinoises)》에, 그리고 나머지 6편은 1892년의 《6중 소설》에 수록했다. 그의 《금고기관》 번역은 대학교재로 사용되었고, 놀랍게도 편수, 입화, 정화, 편미는 물론이고 원문의 시사까지 빠짐없이 번역함으로써 여태껏 나온 번역본 가운데 형식상에서 중국어 원전에 가장 충실했다. 그는 중국어와 프랑스어의 문장구조는 너무 달라서 단어 대 단어의 번역이 불가능하므로 축자역이 아닌 의미 중심의 번역을 했다고 밝혔다. 대체로, 그의 번역은 우아한 문체를 구사하여 프랑스 독자들에게 호평을 받았고, 그 문학적 가치로 인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출판되고 있다.<sup>14)</sup>

14) 이 책은 출간된 지 100년이 지난 1999년에 파리의 파란 중국(Bleu de Chine) 출판사에서 재판되었다.

## VIII. 〈두 번 결혼한 커플〉, 1893년

여섯 번째는 런던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 London)에서 1873년부터 1907년까지 34년간 중국학 교수로 재직했던 로버트 케너웨이 더글라스(Robert Kennaway Douglas, 1838~1913)가 번역한 중국문학 앤솔러지 《중국소설(Chinese Stories)》(1893년)에 수록된 〈두 번 결혼한 커플(A Twice Married Couple)〉이다. 더글라스는 1858년에서 1864년까지 6년간 중국에 가서 통역과 영사 업무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이 때 중국인과 중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었다. 1864년 영국으로 돌아간 그는 대영박물관 중국도서 책임 부서에서 28년간 보조원으로 일했고 이후 1892년 대영박물관 동양인쇄도서 및 필사본 부서가 설립되자 책임자로 발탁되어 약 15년간(1892~1907년) 동양서적의 정리와 보존에 열정을 바쳤다. 그는 동양학 분야 당대 최고의 석학들로 구성된 왕립아시아학회(Royal Asiatic Society)에서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대영박물관에서 중국관련 문헌을 총괄하는 동시에 그는 런던 킹스 칼리지에서 중국학 교수를 겸직하면서 다수의 중국 관련 저서를 집필했다. 1875년에 출판한 《중국 언어와 문학(The Language and Literature of China)》은 중국어와 중국문학에 관한 2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1877년에는 《유가와 도가(Confucianism and Taoism)》를 출간했고, 1882년에 출간된 《중국(China)》은 중국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1895년에는 《이 홍장의 삶(The Life of Li Hung-Chang)》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그의 번역서 《중국소설》에는 단편소설 10편과 시 2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금고기관》에서 선별한 고사가 5편에 이른다. 중국에 대한 그 당시 서양인의 시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며, 중국인의 가치관, 사고방식, 도덕성 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책이었다. 이 책은 그가 대영박물관의 동양인쇄도서 및 필사본 부서 책임자로 있던 시기 출간되었는데, 구미권에서 중국관련 서적의 보고로 인정받는 권위 있는 기관인 대영박물관

관에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고기관》과 중국단편소설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글라스의 번역은 원작의 기본 줄거리에 보조적 등장인물과 새로운 에피소드를 첨가함으로써 원작을 변모시켰다. 줄거리 전개 구조는 다음과 같다. ㉠ 리포코(Le Poko)가 친구 왕(Wang, 원작의 막계)에게 가난한 집안의 딸 그린-제이드(Green-jade)와의 사랑을 정리하고, 출세하려면 부자집 딸을 구해 장가가라고 충고한다. 왕은 리포코의 말에 귀가 솔깃하여 즉시 그린-제이드에 대한 사랑을 접는다. ㉡ 카이펑부(K'aifeng Fu, 開封府) 왕년의 거지두목 추(Chu, 원작의 금노대)의 외동딸 펄(Pearl, 원작의 옥노)이 결혼적령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천한 가문 때문에 문인신분의 남편감을 구하지 못하던 차에 중매쟁이 김여사를 통해 왕을 소개받는다. 왕은 상인의 아들로 그의 부친은 태어나기 전에 사망해서 매우 궁핍한 살림이었지만 글공부에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어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기에 추는 사위로 삼기로 결정한다. ㉢ 왕의 옛 애인 그린-제이드는 왕의 결혼 소식을 전해 듣고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지는데, 마침 그때 지닝(Tsining, 集寧)에 살고있던 고모 텡(Ting)여사에게서 자기 딸의 가정교사로 와달라는 초청장을 받게 되고 즉시 떠날 준비를 한다. ㉣ 리포코는 그린-제이드가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그녀의 집으로 가서 아버지 장(Chang)을 직접 만나 딸을 자신에게 시집보내라고 요청하지만 거절당한다. ㉤ 왕과 펄의 결혼식 날, 현재의 거지두목 레퍼(Leper, 원작의 금나자)가 초대받지 못하자 분한 마음에 거지무리를 이끌고 결혼식장에 나타나 소동을 벌여 결혼식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 결혼 후, 왕은 아내의 정성스런 내조와 장인어른의 경제적 후원 덕분에 글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고 문인계층 내에서 사교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결국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충칭(Ch'ung K'ing, 重慶) 병참부 벼슬을 제수받는다. 왕은 높은 관직에 오르자 미천한 가문에 장가온 것을 후회하기 시작한다. ㉦ 왕은 아내 펄과 함께 부임지 충칭으로 가는 배에 오르고 이때 친구 리포코는 왕의 개인비서 자격으로 동행한다. 부임지로 가는 선상에서 왕은 펄을 강물

에 빠뜨린다. ㉠ 지닝 지사였던 텡(Ting, 원작의 허덕후)이 승진하여 충칭으로 가는 배에서 우연히 펠의 비명소리를 듣고 즉시 그녀를 건져 올린다. 펠이 정신을 차리고 물에 빠지게 된 상황을 설명하자 텡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텡 여사와 그린-제이드는 펠의 남편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 충칭에 도착한 텡은 왕의 상사가 되고, 그의 뛰어난 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리포코가 무역상들을 갈취하여 항의가 빗발치자 텡은 그를 감옥에 보낸다. ㉢ 텡은 왕이 재혼할 의사가 있음을 알고서 펠과 재결합시켜주기로 계획했으며, 그린-제이드를 첩으로 맞이할 것을 왕에게 제안한다. 이들의 결혼식은 같은 날 진행되었는데, 결혼식 날 왕은 뜻밖에도 노파들에게 막대기로 두드려 맞는다. 신부의 방으로 도망쳐 들어온 왕은 신부 펠을 보자 혼비백산하여 귀신이라고 소리친다. 이때 텡이 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해준다. ㉣ 10년 후, 왕은 고열로 쓰러지고 그날 밤 혼령을 만나 수명이 15년 단축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리고 왕은 즉시 사망한다.

사건 전개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발단 부분인데, 왕과 그린-제이드의 연애사건을 추가한 것으로, 이러한 추가적 삽입은 출세를 위해 가난한 애인을 버리는 왕의 비정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소설적 재미를 위해, 왕이 펠을 밀어 물에 빠뜨리는 클라이맥스 장면에서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애원하는 펠과 조용히하라고 으박지르는 왕의 대화를 새롭게 창조함으로써 두 사람간의 팽팽한 갈등을 한층 더 고조시켰다. 그리고 펠이 물에 빠지기 직전에 자신의 불길한 앞날을 예언하는 대화를 삽입하여 복선을 깔았다. 새로운 인물 창조 방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단연 리포코와 그린-제이드의 창조이다. 친구 리포코는 왕의 악행을 부채질하는 보조역할을 하며, 그린-제이드는 왕의 속물근성과 비정함을 한층 더 부각시켜주는 장치로서 기능한다. 시대적 배경을 없앴고, 공간적 배경은 카이펑과 충칭으로 바꾸었다. 주석이 7개 있으며, 5개의 삽화가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삽화의 인물들은 모두 청나라 시대의 복장과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다. 일례로, 다음 삽화3에서 보듯 왕과 텡이 변발을 늘어뜨리고 청나라 시기 관료 복장을

하고 있다. 더글라스의 번역에는 19세기 당시 서구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진 중국문화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다. 예를 들면, 아편을 피우는 모습, 필의 하나 피오니의 전족한 작은 발, 결혼식을 준비할 때 동원된 쿨리, 양말 필과 처조카 그린-제이드를 모두 왕에게 시집보내기로 한 텡



〈삽화 3〉 더글라스의 〈두번 결혼한 커플〉

의 결정을 통해 중국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장이 가졌던 막강한 권한을 부각시켰다. 그런데 더글라스가 새롭게 첨가한 중국문화의 요소 중 일부는 그의 잘못된 이해에 근거한 것도 있었는데, 사실 쿨리는 해외에서 막노동에 종사한 저임금 육체노동자를 지칭하는 용어였다. 따라서 그의 번역은 중국문화를 사실대로 혹은 긍정적으로 전달하는데 있어 한계를 보였다. 그의 번역에는 서양적 요소도 가미되어 있는데, 왕의 애인 그린-제이드의 이름이 세례명이었다는 것, 거지두목 레퍼가 거지떼를 이끌고 결혼식장에 나타나 난동을 부릴 때 결혼식에 참석해있던 왕의 친구 문인들이 그것을 가장무도회 또는 흥을 돋우기 위해 기획된 퍼포먼스로 오인했다는 서술 등이 그것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글라스의 번역은 중국소설과 문화를 하나의 오락거리로 소비하기 위한 영국 오리엔탈리스트의 번역이었다.

## IX.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옥노 고사는 19세기 중반 중국에 왔던 서양외교관과 선교사들에 의해 번역되기 시작했다. 초기의 번역자들은 대부분 중국인과 중국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중국통속소설을 읽

기 시작했다. 통속소설에는 사서오경으로 대표되는 고전과는 달리 현재 중국인의 삶과 가치관이 생생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용한 창으로 여겨졌다. 19세기 서구유럽어 번역본의 공통점은 번역동기에 있어 문학성에 대한 가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거나 또는 중국어 어학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번역본이 출간된 도시는 서구유럽 즉 영국 런던, 독일 라이프치히, 프랑스 파리와 함께 중국의 상해조계와 영국에 할양된 홍콩이었다. 이 가운데 상해와 홍콩에서 출간된 번역본의 예상독자층은 중국에 온 서양인이었다. 금옥노 번역은 서양의 독자를 포함하여 중국에 와서 직접 생활했던 서양인들에게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창과 중국어 습득에 유용한 교재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낳은 결과물이었다. 이러한 번역목적으로 인해 금옥노 고사가 지닌 화본소설의 독특한 체제와 문체상의 특징은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지워졌다. 19세기 금옥노 고사의 서구유럽어로의 번역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원전에 충실한 번역이라기보다는 원전에 근거한 다시쓰기에 가까운 정도의 자유로운 번역이었다. 프랑스 생드니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서양번역가들은 모두 삭제, 추가 서술, 변경 등의 방식으로 중국원전을 변화시켰다. 아편전쟁 이후 중국에 대한 서양의 침략과 지배력이 강화되고 중서간의 문화접촉이 빈번해지던 19세기 후반기 국제관계 속에서 금옥노 서양어 번역은 중국문화와 중국어에 대한 지식의 대중화에 한몫을 담당했다.

마지막으로 19세기 금옥노 고사 번역본의 특징으로 번역저본의 문제를 일러두고자 한다. 19세기 번역본은 모두 《금고기관》을 번역저본으로 삼았는데, 이는 20세기에 나온 번역본이 대부분 《고금소설》을 저본으로 삼은 것과 구별된다.<sup>15)</sup> 번역저본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15) 20세기 5종 번역본은 ① 독일 아우구스티누스 헤닝하우스(Augustinus Henninghaus, 1862~1939) 신부가 번역한 1902년의 <비정한 남편(The Heartless Husband)>, ② 독일 선교사이자 중국학자 리하르트 빌헬름(Richard Wilhelm, 1873~1930)이 1921년 독일어로 번역한 <비정한 남편(Der Herzlose Gatte)>.

왜냐하면 《금고기관》에 수록된 금옥노 고사의 결말이 《고금소설》에 수록된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금고기관》의 금옥노 고사 결말은 막계가 아내를 물에 빠뜨린 죄로 일찍 죽게 되는 인과응보의 결말을 취하고 있으나, 《고금소설》의 결말은 막계가 일찍 사망하지 않고 금옥노와 함께 허덕후 부부와 금노대를 극진하게 봉양했다는 해피엔딩이다. 거지두목의 딸 옥노가 관료 허덕후의 양딸이 되어 문인계층으로의 신분상승이 이루어진 뒤 막계와 재결합하는 문인남성중심적인 결말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20세기 서양어번역본은 막계에 대한 징벌적 처벌이 없는 부부간의 원만한 재결합이라는 결말을 취하게 되었다. 반면, 19세기 서양인들은 《금고기관》을 저본으로 택한 결과 금옥노 고사를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교훈적 메시지가 강한 이야기로 수용했다. 19세기 금옥노 고사의 서양인 번역가는 선교사를 포함하여 대부분 기독교 신앙을 지니고 있었고, 악행을 벌하는 인과응보의 결말을 가진 《금고기관》의 금옥노 고사는 그들에게 인과응보의 이치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로 독해되었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쉽게 수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중국 외문(外文)출판사 전문번역가 양셴이(楊憲益, 1915~2009)와 그의 영국인 아내 글래디스 양(Gladys Yang, 1919~1999)이 공역한 1957년의 〈거지 왕초의 딸(The Beggar Chief's Daughter)〉, ④ 캘리포니아 대학 시릴 버치(Cyril Birch, 1925~2018) 교수가 번역한 1958년의 〈거지 아가씨(The Lady Who Was a Beggar)〉, ⑤ 미국 베이스대학(Bates College) 양수웨이(楊曙輝) 교수와 아내 양원친(楊韻琴)이 공역한 2000년의 〈금옥노가 비정한 남편을 때리다(Jin Yunu Beats the Heartless Man)〉이다. 이 가운데 ①만 《금고기관》을 번역저본으로 삼았고, 나머지 4종은 모두 《고금소설》을 번역저본으로 삼았다.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삼언에 대한 본격적인 이해가 진행됨으로 인해 《고금소설》이 번역저본으로 선택될 수 있었다.

〈부록〉 19세기 금옥노 고사 서양어 번역서 목록<sup>16)</sup>

번호	제목/년도	번역가/국적	편수	입화	정화	편미	발표지면
1	옥노, 두목의 딸/1868	에드윈 에반스/ 영국	×	×	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	×	잡지
2	보상, 중국 관료의 복수/ 1877	리디아 메리 페이/미국	×	×	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	×	잡지
3	비정한 남편/ 1879	안젤로 조톨리 /이탈리아	×	×	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	×	앤솔러지
4	비정한 남편/ 1883	게오르그 폰 가벨렌츠/ 독일	×	×	②-③	×	어법서
5	아내와 배은망덕한 남편/1892	테르베 드 생드니/ 프랑스	○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	○	앤솔러지
6	두 번 결혼한 커플/1893	로버트 더글라스/ 영국	×	×	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	×	앤솔러지

## 〈참고문헌〉

明 抱擁老人 撰輯, 《今古奇觀》, 臺北: 世界書局, 1976.

宋麗娟; 孫遜, 《“中學西傳”與中國古典小說的早期翻譯(1735~1911): 以英語世界爲中心》,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7.

詹春花, 《〈今古奇觀〉德譯版本情況》, 《古籍整理研究學刊》 第4期, 2012.

16) ×는 번역되지 않았음을 ○는 번역되었음을 표시하며, 정화 칸의 숫자는 본고 제2장에서 기술한 금옥노 고사 중국원작의 서사구조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부분만 번역되었음을 표시한다.

- trans. by Edwin Evans, “Yuk Noo, The Round Head's Daughter, A Romance of 1,600 Years Ago”, *The China Magazine* Vol. Midsummer, 1868.
- trans. by L. M. Fay, “Recompense, or the Mandarin's Vengeance”, *The Far East* Vol. 3, 1877.
- trans. by Robert Kennaway Douglas, *Chinese Stories*, London: William Blackwood and Sons, 1893.
- Ian Welch, “Lydia Mary Fay and the Episcopal Church Mission in China”,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vol. 36, no. 1, 2012.
- Antonio De Caro, *Angelo Zottoli, a Jesuit Missionary in China (1848 to 1902): His Life and Ideas*, Berlin: Palgrave Macmillan, Springer Nature Singapore, 2022.
- Angelo Zottoli, *Cursus Litteraturæ Sinicæ* Vol. 1, Ex Typographia Missionis Catholicæ in orphanotrophio Tou-sè-wè(Tou-chan-wan), 1879.
- Georg von der Gabelentz, *Anfangsgrunder der chinesischen Grammatik*, Leipzig: T. O. Weigel, 1883.
- traduites pour la première fois du chinois par le Marquis d'Hervey-Saint-Denys, *Six Nouvelles*, Paris: J. Maisonneuve, Libraire Editeur, 1892.

###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translation of story of “Jin Yunu Beats the Heartless Man”, which was the most translated into Western European

language among *Jin-gu-qi-guan, or Wonders Old and New*. Since the first English translation of story of “Jin Yunu Beats the Heartless Man” was published in 1868, more than 11 versions have been translated into Western European languages such as English, Latin, German, and French. In this study, six Western European translations published in the 19th century are examined. Each translation was examined in chronological order, focusing on the cultural context of the times the translator faced, motivation for translation, translation characteristics and the method of publication. The Western European translations in the 19th century were free translations that were closer to rewriting based on the original texts than faithful ones to the original texts, al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translation. The Western language translations played a part in the popularization of knowledge of Chinese culture and Chinese language.

Key Words : 명대백화단편소설(Vernacular Short Stories of Ming Dynasty),  
금옥노 고사(The story of Jin-yu-nu), 번역(Translation),  
서양(The West), 19세기(19th century), 번역가(Translator),  
번역 책략(Translation Strategy), 번역 특징(Translation  
Characteristics)